

‘국토부 족쇄 운항 축소’ 전화위복… 국내선부터 재이륙

꺾여 드려나 LCC

④ 진에어

창립 10주년에 오너리스크로 고비 2년 가까이 국토부서 각종 제재 코로나19 여파에 국제선 못 띄워 제재 해제 이후 국내선 본격 공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진에어가 여전히 경영난에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08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첫 취항에 나섰던 진에어는 지난 2018년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 따른 ‘오너 리스크’로 인해 창립 이래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약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당초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대신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론내렸다. 면허취소로 인해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진에어 직원의 대량실직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의 충분한 이행으로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으로 진에어는 2018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일본 여행 보이콧 당시 수요가 대폭 줄어든 일본 노선 대신 다른 지역으로 신규 취항에 나섰던 다른 LCC(저비용항

공사)들과 달리, 진에어는 자구책조차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2분기 영업손실 266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2분기 -596억원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의 제재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지문회의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전 항공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만큼,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도 불가피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외려 이례적인 장기 제재를 받고 있던 진에어에는 ‘기회’로 작용한 셈이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대부분을 운항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진에어는 국내선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진에어는 지난 5월 제재 해제 이후 처음 대구-제주, 김포-부산, 김포-광주 등 노선에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지난 7월 ▲김포-대구 ▲김포-울산 ▲울산-제주 등 다수 노선도 운항하며 본격적인 국내 수요 잡기에 나섰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그동안 제재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못 했었다. 운수권 배분도 못 받았고, 따라서 기재 도입 등 사업 확대를 못 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외려 득을 본 셈”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운수권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에 코로나19사태가 해소된 후 해외 노선에 진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출시… AI성능 4배 ↑ 아시아나항공-무협, 기업 해외진출 맞손

18개월간 개발 ‘타이거레이크’ 공개 “그래픽 성능 경쟁사보다 1.8배 높아”

인텔이 새로운 프로세서를 출시하고 AMD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모습이다.

인텔은 3일 11세대 프로세서인 ‘타이거레이크’를 공개했다. 타이거레이크는 윌로우 코브 CPU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포함해 오디오, 와이파이가 6 등을 내장한 통합칩(SoC)이다. 노트북에 최적화해 18개월 개발 끝에 완성됐다.

인텔은 타이거레이크를 통해 경쟁사인 AMD인 추격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쟁 모델과 구체적인 성능 비교를 공개한 것.

구체적으로는 인텔의 i7-1185G7과 AMD의 라이젠7 4800U를 컴퓨팅과 그래픽, AI 3개 부문에서 각각 SYSmark25, 3DMark Fire Strike, MLPerf 3개 벤

치마킹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인텔 제품이 컴퓨팅 28%, 그래픽 67%, AI는 4배나 더 높은 성능을 냈다고 소개했다.

인텔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어도비 프리미어 등 실제 소프트웨어 구동시에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배까지 빠른 속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디오와 사진 등 콘텐츠 편집과 제작에서도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다.

핵심은 윌로우 코브 CPU다. 슈퍼핀 10나노 공정으로 개발됐으며, 최고 4.8GHz의 클럭 스피드를 낸다. 구동 전력을 7~28W로 폭넓게 설정해 사용 환경에 따라 입맛에 맞게 쓸 수도 있다.

특히 인텔은 그래픽 성능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고 자신했다. 와트당 성능을 높이고 L3캐시를 3.8MB로 탑재하는 등 경쟁사보다 1.8배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테스트 결과도 보여줬다. 그동안 AMD에 비해 그래픽 성능 부문에서 다소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단점을 극복했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딥러닝 부스트’와 ‘통합 인텔 컨트롤 플로우 인포스먼트 테크놀로지’, ‘고성능 AV1 코덱’과 함께 최초로 이미지 처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타이거레이크에 포함했다.

인텔은 타이거레이크를 기점으로 새로운 노트북 플랫폼 브랜드 ‘이보’를 출범시켰다.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한 타이거레이크를 탑재한 노트북에 인증되며, 배터리 응답성과 FHD 디스플레이 사용시 9시간 이상 수명, 30분 충전으로 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성능 등을 포함한다.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20개 이상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아시아나항공-무협, 기업 해외진출 맞손

아시아나항공이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전세기 적극 운항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한국무역협회와 해외진출 상용 수요 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내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된 이날 협약식에는 아시아나항공 김영현 여객본부장,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이 참석해 양사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대한민국의 무역 진흥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제 단체로, 현재 7만 4000여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의 항공 수요를 파악해 전세기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도울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은 한국무역협회 측



3일 삼성동 코엑스 한국무역협회에서 아시아나항공 김영현 여객본부장(왼쪽),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이 해외진출 상용 수요 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 전세 항공기를 비롯한 정규편 여객·화물 운송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신형시장서 잇단 수주

사우디서 50톤급 굴착기 10대 수주

국내 건설기계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대규모 수주를 따내며 신형시장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중동 대형 고객사를 상대로 건설기계를 연이어 수주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체가 진행한 대형 굴착기 입찰에서 유수의 글로벌 건설기계 회사를 제치고 50톤급 굴착기(DX520LCA) 10대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입찰에서 고

객사 수요에 최적화된 50톤급 굴착기를 제시했으며 특히 성능, 가격, 서비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고객사는 두산인프라코어 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사우디 리야드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다양한 두산 건설기계를 투입하고 있다. 올 초에도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절식 덤프트럭(ADT) 10대를 구입한 바 있으며, 70톤급 굴착기와 휠로더, ADT 등 이번 신규 구매를 포함해 총 50여대의 두산 장비를 운용 중이다.

중동 건설기계 시장은 최근 유가 및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상황이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두산인프라코어가 중동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50톤급 대형 굴착기 모델 DX520LCA.

출시하고, 고객 맞춤형 통합 서비스 솔루션 ‘두산케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대형 고객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며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획득

네이버(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하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증명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이용자가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상의 정보와 대조돼 높은 신뢰도

를 갖는다.

네이버는 이번 임시 허가 획득을 계기로 연내 ‘네이버 인증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 확인부터 운전면허 증명, 편의점에서의 성인 여부 확인까지 생활 속 다양한 환경에서 네이버 앱이 활발히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 확인 페이지에는 캡처 금지 기술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